

간 호 교 육 과 간 호 연 구

<연세간호대학 교수> 전 산 초

I. 서 론

현대에 있어 연구라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type 의 분석에 부수되는 명칭이라고 하겠으며 이것은 과학상에 여러가지 발견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 가장 순서적인 접근법이며, 연구는 우리들이 진실을 탐구함에 있어 선택하는 여러가지 수단 중의 단저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이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현 사회는 발전하고 있으며, 이 발전의 원동력은 각 분야의 쉬지 않는 학문의 연구에 있다고 보겠다. 이와 같은 연구는 그 양이나 질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 의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의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pollo 11호”가 달나라에 가게 되어 명실 공히 세계들 하나로 만든 것도 이 연구의 위대한 결과라고 보겠다.

이에 비해 간호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교할 수 없으리란치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도 한국의 간호학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란 거의 실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된다.

간호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현황이야 어떻든 현재 당면한 문제가 산적한 것만은 사실이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 부

지런히 당면문제 및 발전 모색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시대라고 생각된다.

간호학이 science 의 한 분야로 독립된 역사가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대학과정이 생긴 이후라고 필자는 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몹시 짧은데도 그 이유야 있겠지만 간호원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저하는 간호연구의 기쁨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된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간호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며,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이에 미처 미치지 못한 요구되는 필요의 gap 을 어떻게 메꾸어나갈 것인가가 간호교육의 과제의 하나라고 보겠다.

여기 간호연구의 필요성이 오늘날 절박하게 요구되는 몇가지 점을 들어 보겠다.

II. 간호연구의 개념

1. 간호연구의 필요성

첫째로 대학교육의 기능은

- ① 교육의 기능
- ② 사회봉사의 기능
- ③ 연구의 기능

이라고 하겠다. 간호교육도 이 세가지중 제일 결여된 연구의 기능이 요구되는 때문이다.

여기 첨가하여 간호교육은 또한 Professional Education (전문직 교육)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 자체가 그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되므로 이 중의 필요성을 지니게 된다.

간호직은 법률가, 목사, 의사, 예술가와 같이 전문직 분야에 속한다. 전문직을 분류하는 규정이 많았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활동이다.

만일 우리에게 창의적인 연구 활동이 없다면 전문직 교육을 받지 아니 하여도 될 것이다.

모든 간호활동과 간호교육상의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모든 간호직 및 간호교육상의 전문성은 상실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타당한 필요성이라 하겠다.

둘째로 급속하게 변천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다.

사회의 변천이 별로 없던 과거에는 구태여 연구적 입장에서 간호문제, 간호교육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며 또 기왕에는 그 가르치던 것을 되풀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변천의 속도가 빨라짐으로 이왕의 교육내용, 교육방법, 지식을 그냥 되풀이 할 수는 없게 되었다.

간호원, 아니, 간호학생의 태도, 가치관, 개념, 그들의 철학은 20~3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이제 앞으로는 그 달라지는 속도가 가속도적인 현상을 나타내겠으니 10년전 5년전 것을 가지고 간호하고 교육할 수는 없는 형편이 될 것이다.

간호교육자 자신이 달라져야 하겠고, 그러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여기 필요한 것이다.

셋째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그 양이 증가하는 지식,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 체득하기 위한 필요성이다.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Curriculum Study in Basic Nursing Education”의 저자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며 간호교육에 공헌이 큰 교육학자 Ole Sand가 근자에 저술한 “Schools for the Sixties”(근대화를 위한 교육계획, 경영식, 유패영 역)에 보면 지식과 기술의 발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후 약 2,000년간의 축적은 처음에는 대단히 완만하였지만 얼마 안가서 급격한 가속도적인 증

대를 보였다. 그 축적과정을 시간적으로 표시하여 보면 예수의 탄생에서 1750년째에 처음으로 배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1900년에는 제 2의 배증(倍增), 1950년에는 제 3의 배증이었고, 제 4의 배증은 불과 10년 후인 1960년에 일어난 것이다”¹⁾.

이 서술을 보더라도 지식이 얼마나 늘라운 속도로 축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과연 우리가 이와같이 많은 지식과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며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지가 우리 간호교육자들이 당면할 큰 과제라고 하겠다.

내가 과거에 간호학교에서 배운 것을 오늘날도 같은 내용, 같은 방법으로 가르친다면 오늘날 새 시대에 대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형성이나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간호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의 의학과 오늘의 의학은 그 학문적 이론이나 실제에 있어서도 격세의 차가 있으며, 공업에 있어서도 공업기술은 물론 그 운영이나 경영면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 지난번 정부에서 교수들을 위하여 마련한 공업단지 시찰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다. 이때 더욱 절실히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초조한 감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부리핑을 들으면 그들은 기계의 나사못 하나에서부터 생산, 소모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연구와 개혁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제일 귀중한 인간을 간호한다는, 이것을 교육한다는, 간호교육은 10년 전의 것과 20년 전의 것과 그 방법, 내용, 교사들의 지닌 지식, 기술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나 생각할 때 등에서 땀이 나는 초조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영국의 의사 Margaret Jackson은 간호활동의 실제적 실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간호의 방법과 그 도구들의 연구는 Eve(헤화)의 시대부터 시작하였다. Nightingale 또는 그 시대에 교육을 받은 간호원들은 그 연구들 예측

1) Ole Sand, et al, “Schools for the Sixties” NEA. 1963

경영식, 유패영 역 “근대화를 위한 교육계획” 서울 제동문화사, 1967, pp 81~82

할 수 없으리만치 발전시켜 놓았다. 그러나 그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간호연구는 마치 그 발전을 막다른 골목에 갖다 놓은 것 같이 되어 있다.

Bed making이나, 담요를 감싸가면서 깨끗이 씻기는 것, 관장, 투약 등의 기본기술은 여성이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일체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간호원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방법과 기구가 최선인 것인가? 이것들을 교칠 수 있는 것인지를 그 시점에서 스스로 의문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의학상의 교육은 연구적 분위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간호원도 역시 연구적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국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 의학연구의 분위기가 아니라 간호원 독자 분야의 연구적 분위기에 쌓여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간호연구의 재출발할 시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였다.²⁾

넛케르 간호사업을 이상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간호연구를 해야겠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간호원의 필요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해마다 간호학과의 정원은 증가일로에 있다. 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이상적인 간호사업이 실현되겠고, 올바른 교육을 시키려면 결국 올바른 목적 설정과 여러가지 교육 환경적 조건 및 방법이 이루어져야겠다.

양적으로 늘이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지대한 관심과 막대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여기 간호사업을 이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과 직결되는 문제 즉 간호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식도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현대 교육에 있어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 간호의 철학, 가치관, 창의력 함양 등의 인격 형성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로 세계 여러나라의 간호연구와 호흡을

맞추기 위하여 간호연구와 이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미국의 현대 간호연구를 보면 다른 profession에 뒤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최근의 nursing research에 발표되는 연구 동향만 보더라도 과거의 것에 비하여 명실 공히 nursing research를 하고 있어 간호분제 및 간호교육에 있어서의 실제적이고 세분화된 문제들을 다루어 연구하고 있고, 또 교육 실천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조해 나가고 있음을 본다.

또한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연구하는 움직임이 볼 수 있으며 특히 간호활동의 실태조사, 간호사업이나 교육의 실태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얻어지는 통계 기타 연구를 장려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결과로 그 보고가 많이 서적으로 출판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 내음을 만한 새로운 연구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이미 성취한 연구를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 보코 합리화하는 적용방법을 실험하는 연구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2. 다른 나라의 간호연구와의 비교

미국의 간호연구 :

간호연구의 역사로 보나 그 성과로 보아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되어 미국의 간호연구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고자 한다.

필자가 nursing research를 공부하는 동안 미국의 nursing research의 역사는 나에게 많은 교훈과 지식을 주었다. 여기 간략히 미국의 간호연구의 역사를 4기로 나누어 논해 보고자 한다.

1920~1930년대 (초창기) :

이 시대는 미국의 간호연구의 초창기라고 하겠으며, 또한 이 시대가 미국에 처음 대학과정이 싹트기 시작할 시대이기도 하다. 이 시대에 연구된 것을 간추려 살펴보면 극히 기본적인 간호교육과 간호업무의 문제였으며,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2) Jackson, Margaret, Where Should the nurse be Trained? In long stay Hospital Nursing Time, 51:560, 1955

당면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간호교육 시설 확충문제, time study, 의사의 복잡한 지시에 따르는 간호원의 업무의 비효율 문제로 파생하는 간호원 증원문제, 간호교육의 독립성(병원으로부터)문제, 간호업무에 위한 수요공급 문제, 직무분석, 간호학교의 등급 결정 문제 등이 연구의 제목으로 다루어졌다.

1930~1940년대(착상기) :

이 때는 여러가지 연구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한 때라고 보겠다.

“The Committee on the Grading of Nursing Schools”는 3회에 걸친 계속적 연구를 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An Activity Analysis of Nursing”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로 인정되기까지는 1950년 “national nursing accrediting service”가 생긴 이후였다. 또한 간호원의 보수문제가 연구되고 이에 따라 A.N.A에서 간호원의 경제적 보호가 역력히 검토된 때도 이 때이다. 그 혜택은 오늘날 한국 간호원도 직접 받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영향을 가져와 주는 연구들이라고 보겠다.

1940~1950년대(성숙기) :

이 시대의 대표적 연구는 The Cost of Nursing Service와 Nursing Education에 관한 기본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The National Organization of Public Health Nursing”에 의하여 home care의 필요와 그 자원에 대하여 16개 지역에서 조사 보고되었으며, 저 유명한 Brown report가 연구 보고된 것도 이 때이다.

이 보고는 후에 “nursing for the future”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간호학 각 분야에 지대한 도움을 가져왔다.

1950~1960년대(발전기) :

미국 전국적으로 간호연구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 주장이 성취되어 드디어 1952년 처음으로 “Nursing Research”가 창간된 때이다. 또 하나 Dr. Simmon(인류학자)과 간호교

육자 Virginia Henderson은 Yale University 후원 아래 National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of Nursing Service에서 과거 10년동안의 간호연구를 규명 평가하는 조사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 report는 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시대의 특기할 것은 대학 내에 간호연구기관이 설치된 것이다. 그 중의 하나는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에서 Dr. Helen Bunge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간호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다. 즉 이와 같은 research institution들은

1. 간호문제 및 간호교육문제의 연구
2. 연구결과 보고하도록
3. 연구자 양성 및 원조가 목적이었다.³⁾

이에 뒤이어 ANA의 원조로 The American Nurses' Foundation이 설립되고 정부기관에 The Nursing Research Grant & Fellowship Program of the Division of Nursing of the U.S. Public Health Service가 설립되었다.

Walter Reed 육군병원에도 research grant가 생기었다.

1960~현재(전성기) :

Nursing Studies Index가 완성되어 연구를 위한 문헌 조사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nursing research에 관한 유명한 저서들이 많이 저술된 때도 이 시기이다.

1962년에 Mayer와 Heidgerken의 “Introduction to Research in Nursing”이 출판되었고, 1964년에는 Simmon & Henderson의 Nursing Research: A Survey & Assessment가 완성되었으며, 1965년에는 Abdallah와 Levine의 “Better Patient Care through Nursing Research” 등의 값진 저서가 모두 간호학자들에 의하여 저술되었으니 세계의 간호연구에 미칠 결실이라 하겠다.

현대 미국의 간호연구 경향은 Simmons와 Henderson이 그의 저서 가운데 “이제 미국의 간호연구는 간호교육이나 행정적 연구가 임상적 연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지적하였

3) Abdallah Faye G. & Levine Eugene, Better Patient Care through Nursing Research. The Macmillan Co. New York, 1965, pp 4~7

으며 앞으로 임상적 연구 즉 환자중심의 연구, care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권면했다. 또 다른 연구자들도 이것을 주장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의 노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의 보건위생부 의무장관의 간호고문단은 그들의 보고 가운데 다음과 같은 recommendation을 볼 수 있다.

“간호연구를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에 관한 연구는 이제 nursing care의 개선을 위한 기초가 되는 지식을 산출하기 시작했다. 간호의 형태가 변모하여가는 것에 보조를 맞추어 환자 중심의 연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보다 더 일층 지원이 되어야겠다.”⁴⁾

즉 이것도 간호의 실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이것이 전체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간호연구를 위한 경제적인 국가 원조가 얼마나 뒷받침되나 하는 것을 조사하다가 얻은 것으로 부분적인 source를 얻었다.

즉 “미국 공중위생국에서만 1955년 이래 132만 건의 기록에 대하여 8,672,700불의 간호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하였음을 볼 때 미국의 간호연구 및 간호교육의 원조가 가히 추정된다.⁵⁾

대학 내의 경향

- ① 미국의 몇 간호학교에서는 학생의 초보적 연구경험을 주고 있고
- ② 교수진의 연구능력을 개발하려는 program을 준비하는 학교도 있으며
- ③ 연구실 설계를 넣은 간호학교 건축계획도 볼 수 있었으며
- ④ 연구 교수제를 두어 연구에만 몰두하게 하여 연구를 장려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3. 한국 간호연구의 현황

우리나라의 연구를 논하기에 앞서 보다 먼저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세우며 전문직 교육으로 출발하는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1955년에 간호대학과정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61년에는 대학원과정이 시작되었다.⁶⁾ 이때 비로서 research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박대선은 그의 저서 “대학과 국가발전”에서 “대학은 학식과 지성에 있어서 한나라의 최고 수준을 이루고 또 꾸준히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들의 자주적 공동생활체이므로 문화의 전승에 그치지 않고, 그 문제의 계 측면과 내용에 걸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 확장하는 창조적인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식의 확장 세기에 있어서 대학이 맡아야 할 연구책임은 대학원의 발전을 촉진케 했고 그 결과 연구는 활기를 띄우게 되고도 있다. 미국의 경우 학부 보다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 연구의 중심처와 같은 구실을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그 좋은 예이다.⁷⁾

시기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것을 미국의 간호연구의 초창기 1920~1930년대에 비교한다면 약 반세기 가량 뒤늦은 감이 있으며 또한 그 내용적으로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간호연구 발표는 대개 대한간호, 각 대학회보, 논문집을 통하여 발표되었고 간호학술 발표지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어떤 때는 타 학문의 지면을 빌어 게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까지 연구는 대개 간호원의 업무분석, 수요공급, 교육과정, 평가, 행정제도 등이었으며 특기할 것은 case study가 압도적으로 그 수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1961~1969년 4월까지의 한국의 간호연구를 조사하면

임상분야	53	} 계	93
보건분야	15		
간호교육	13		
병원행정	9		
기 초 학	3		

4) Henderson, Virginia: OP Cit, 2, p. 34

5) Ibid. 4

6) 이영복, “간호사” 서울 수문사, 1969, p. 218~221

7) 박대선, “대학과 국가발전”, 서울 교육 출판사, 1968, pp 6~7

연도별	건수
1961.....	1
1962.....	7
1963.....	8
1964.....	6
1965.....	14
1966.....	18
1967.....	16
1968.....	14
1969. 4월	9
계	93

연도별 건수를 보면 큰 7년간 약 93편으로 매년 미소하기는 했으나 늘어가는 현상을 보여 주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할 소망이 보이는 현상이다.⁸⁾

이상 survey 는 가톨릭 간호대학원생의 연구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근거는 대한간호 창간호로부터 1969년 4월호까지의 것과, 연세대학 간호학회보, 이화대학 이대간호, 서울대학 대학원 및 보건대학원 논문집, 국립보건원의 공중보건 등에서 수집된 것임을 밝혀 둔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간호연구의 문헌 연구상 크게 공헌할 자료 즉 대한간호 목차 색인이 1969년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를 통하여 발간된 것이다.

1960~1967년에 우리 손으로 못한 것이나 간호교육에 대한 survey 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고문단으로 온 Indiana 대학교의 교수단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조사 연구된 보고서 Adaptation of Advisory Services in Nursing Education in Korea 는 간호교육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간호교육 연구에 재료를 제공해 주었다.⁹⁾

1969년 발표된 홍신영, 이영복, 이귀향 공동 연구인 196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한국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는 간호교육의 강화와 개선을 위한 조사로서 간호교육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간호, 간호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어 다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본다.¹⁰⁾

이 외에도 개인의 연구로서 좋은 연구가 더러 있었으나 지면상 다 쓸 수 없고 한가지 필자가 이 원고를 준비하는 동안 받아본 최근의 것으로 하영수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 (1) —— (입학 동기 및 교육과정에 대한 반응 조사 —— 이화여자대학 한국생활과학연구원 논문집 3집에 게재)는 연구 자체로 보아 간호교육에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곧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요시 되며 그 게재에 있어 엄선을 하는 “이화 논문”에 실리었다는 것은 간호연구의 자랑할만한 일이기라 한가지 첨가한다.¹¹⁾

분계 많은 한국의 간호사업, 간호교육의 타개해 나간 길은 오로지 간호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전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간호행정자, 교육자, 임상간호원의 책임이 이에 부가된 시대라고 보겠다.

4. 간호연구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할 때 간호연구의 문제점은 허다하다. 연구자 준비, 연구비, 연구시설, 연구 제도, 발표기관 등에 관한 준비가 간호학 분야에서 불충분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겠고 또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한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들 자체가 지닌 문제인 것이다. 언제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내에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들이 아직 뚜렷한 “문제들” 파악하

8) 한윤복, 강홍순, 김경자, Catholic University 대학원생들의 연구, “한국에서 쓰여진 논문 조사 분류” 1969.

9) Adams Mildred P., “Adaptation of Advisory Services in Nursing Education in Korea,”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Indianapolis, 1967, pp 47~49”

10) 홍신영, 이영복, 이귀향, “한국 간호 교육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서울, 1969, p 41

11) 하영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 (1)” 한국생활과학연구원논문집, Vol. 3, pp 139~152

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요청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경우는 게으르다는 것이 지나친 표현일까? 이 말은 너무 단도직입적인 발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하는 일에 왜? 어떻게? 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탐구할 때 그 다음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부족한 것을 보고 좌절되기 보다는 이미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기반 위에 간호연구의 탐을 쌓아 올릴 때가 이때라고 보겠다.

거듭 강조하는 것은 전문직 즉 하나의 독립된 실천분야 즉 확실한 정의 밑에 활동하는 간호원의 교육은 자체의 제문제를 밝히고 끊임없이 자기 직무를 확인하고 자기의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개선하며 따라서 자기가 한 일(nursing care나 education)의 효과를 측정 평가하는 것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간호연구의 특징 및 연구의 노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분야가 세분되어 간다. 그 이유는 지식이 향상하여 그 양이 증가하면 먼저 학자들이 해 놓은 업적을 이해하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의문이 해결될 때마다 더 많은 의문점이 생기게 마련이고 “why”라는 의문은 영구히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 “왜” 자체가 연구인 것이다.

지금까지 취득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연구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연구는 단지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이 여러가지 지식에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연구는 선배의 남긴 경험, 지식을 조사 정리하고 여기서 새로운 생각이나 문제점, 법칙을 발견하기에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에서 하나의 법칙을 낳은 것이 학문이다.

우리들의 행동 즉 간호행동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항상 학문인 것이다.

간호행위 및 간호교육에 있어서 항상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간호연구의 특성이며 이러한 습성은 간호원이나 '간호교육자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다.

간호는 “인간의 간호”이며 병든 인간 뿐 아니라 건강한 인간까지도 도와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학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 외에 타분야와 경신위생, 재활, 인간관계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간호학은 의학 보다도 더 넓게 전개되리라 본다. 따라서 연구도 넓게 전개될 가능성을 지닌다. 간호연구의 제목과 의학연구의 제목을 비교하여 볼 때 이것이 증명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호연구는 간호원에 의하여서만 연구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간호연구의 중요한 노선 :

1. 간호교육의 실천면의 개선을 위한 연구
2. 간호행위, 기구 및 설비에 관한 연구
3. 간호교육이나 간호행위의 평가, 간호기술의 가치 실사
4. 이상을 위한 통계적인 활용 등이다.

Ⅲ. 연구의 이용

첫째. 연구를 하는 것이나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연구의 보고서 작성 및 이를 인쇄물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이것을 도서관 research file에 비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학문연구에 불가결한 것이다.

둘째. 연구의 이용에 있어 다른 사람의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는 문제점이나 recommendation은 다음 연구자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화대학교 간호대학 symposium에서 강우철의 발표에 제시한 문제점이 우리의 연구 제목이 될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우철 : —오늘의 대학교육

- (1) 대학으로서의 간호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문제는 학문적 입장과 전문기술적 입장의 조화로 이끄는 과제

(2) 양적 향상과 질적 향상이 동시에 요구되는 과제

(3) 대학교육의 목적이 넓은 의미의 인간형성으로 집중되어 가는 경향에 부합되는 전문교육이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등이다.¹²⁾

이러한 예는 찾아보면 꽤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구가 이용되나 하는 것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말하고 끝을 내고자 한다.

최근에 도서관에 도착한 Nursing Outlook (1969, August)에 게재된 "Current Trends i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에서 대학교육의 최근 경향에 대하여 쓴 것을 보며 느낀 것 중의 일부분만 예를 들겠다.

간호교육 :

요사이 미국의 교과과정의 경향의 분석에 대한 것이다. 최근 8년간 대학과정이 필수학점수에는 별 변화를 보지 못했으나, 그 학점 방향은 간호학과목과 비간호학과목의 배치에는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학교들이 전보다 많은 학점을 비간호학과목에 주고 있는 것이다.

한 학교는 130 학점을 학사학위 취득학점으로 보는데, 90 학점이 비간호학, 40학점이 간호학에 배정되었다. 조사한 거의 전부의 학교에서 general education에 credit을 올리고 있으며 극소수의 몇 학교만이 이에서 제외되었다.¹³⁾

나는 이것을 읽을 때 그 사실에 대하여는 긍정하면서도 과연 이것을 우리나라에 장차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는 자신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하영수의 "대학에 관한 조사 연구"

를 읽고 학생들의 간호교육의 목적을 보면 인간성있는 간호원을 길러내는 것을 제일로 하고 있고 (39%), 기술교육은 제 2로(15.5%)하고 있는 것 같았다.¹⁴⁾

이러한 조사연구를 보고 나의 의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용가능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다.

보건간호 행정의 연구의 이용 :

보건간호원 배치에 있어 옛날에는 인구 5000:1이라고 되어 있었다 하여 오늘날 사회가 변했는데도 5000:1로 그냥 배치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A, B, C 세 지역으로 나눈다고 할 때 각각 이 지역은 health need가 다를 것이다. 즉 연구구조, 주민의 연령, 성격 또는 health resource 등이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5000:1로 세 지역에 똑같이 배치한다면 어떤 지역의 보건간호원은 일이 없어 소신껏 일하지 못하는 예도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일의 분량이 너무 많아 지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¹⁵⁾

이 때 연구조사의 결과를 이용한다면 가장 적절한 배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간호업무 :

Marian Kingsley의 연구 "An Investigation of Hospital Noises Irritating to Patient"에서 환자의 안정을 방해하는 소음 중 65%가 간호원이나 의사, 기타 직원의 말소리이며, 우리가 추측하던 병원 밖의 교통소음은 불과 6.6% 밖에는 안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하여 환자를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안전을 방해하는 소음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길을 찾게 되었다고 본다.¹⁶⁾

이와 같이 연구는 이용하는 데서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구는 먼저

12) 강우철, "오늘의 대학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인가 기념 심포지움 주제강연 "오늘의 대학교육"에서

13) Mary A. Dineen "Current Trends i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Nursing Outlook, August, 1969, pp 22~26

14) O.P. cit 11. p 149

15) 김모임 구두제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6) Marian Kingsley, "An Investigation of Hospital Noises Irritating to Patients," 연세대학교 간호학회보, 1966, pp 97~104.

연구자 자신이 이용하여 평가를 얻을 것이니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그 다음 그 연구의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IV. 끝을 맺는 말

간호연구의 절박한 필요성 즉 간호 교육이 대학교육으로서 간호전문직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변천 발전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팽창하는 지식 전달의 발전을 위해 또한 간호사업의 이상적 실현 및 세계의 간호학과 어깨를 겨누기 위해서, 이상과 같은 절박한 필요성 밑에서 다른 나라의 간호연구의 형편과 우리나라의 것파를 비교하여 보았으며, 간호연구의 특징을 논했고, 앞으로 한국의 간호연구가 나아 갈 노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시행하는데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찾아 보았으며, 연구 결과의 이용에 대하여서 언급했다.

우리에게 당면한 간호교육문제는 오로지 연구를 통하여 타개해 나아감이 가장 진실된 올바른 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참 고 서 적

1. Vreeland, Eilwynne M., Nursing Research Program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Highlights and Trends. *Nursing Research*, 13:148 (Spring) 1964
2. Simmons, Lee W., and Henderson Virginia; Nursing Research, A Survey & Assessment, Appleton Contry-Corfts, New York. 1964 p 461

<40 page 에서 계속>

畿道 教育研究所. 1968.
 “學習意慾助成의 實際” 教育資料, 112號 京畿道 教育研究所, 1968.
 “大學生活의 모뉴망, 本校生의 크립活動實態” 梨大學報, 1968.
 “各種 크립 및 會員名單” 梨花女子大學校 學生處 1968.
 Alice B. Brethorst, *Methods of Teaching in School of Nursing*. Philadelphia & London W. B. Saunders Co., 1950.
 Amy Frances Brown, *Curriculum Development*, Philadelphia & London; W. B. Saunders Co., 1960.

3. U.S. Surgeon General's Consultation Group,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P73.
4. Macgregor, Frances C.,: Research Potential of Collegiate Nursing Students Developing a Research Attitude & Creative Imagination. A Preliminary Report, *Nursing Research*, 13:259 (Summer), 1964.
5. Meyer Burton and Heidgerken, Loretta E., *Introduction to Research in Nursing*, J.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62.
6. Wald, Florence S, and Leonard, Robert C.,; Towards the Development of Nursing Practice Theory. *Nursing Research*, 13:309 (Fall) 1964.
7. Henderson Virginia, et al; *Nursing Studies Index* Vol. III, 1957~1959, J.B. Lippincott, Philadelphia, 1963.
8. “대한간호 목차 색인” (1962~1968)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서울, 1969.
9. 전산초, “변천하는 사회와 현대간호의 경향” 대한간호, Vol. 7. No 6, 1969.
10. 전산초, “간호사업의 문제점과 미래상” 대한간호 Vol. 8, No 2, 1969.
11. Mephetridge L. Mae, “Three Methods of Conducting a Nursing Skills Laboratory” *Nursing Research* 17: 462~463 (Fall) 1968.
12. *Nursing Research*, 1967~1969.

Ole Sand *Curriculum Study in Basic Nursing Education*. New York: G. P. Putnams sons 1955.
 Carole Donavon “Making Theory Work in Patient Care” A.J.N. 66:10 1966. p. 2204
 Emily Myers & Ella Pott “An Internship for New Graduates” A.J.N. 68:1 1968.
 Loren D. Pankratz & Deanna M. Pankratz “Determinants in Changing a Nursing Career” *Nursing Research* N.L.N. 16:2 1967.
 Virginia L. Oleson & Fred David “Baccalaureate Students Images of Nursing” *Nursing Research*, 15:2 N.L.N. 1966, p. 151